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봉 주⁺

(서울대학교)

김 광 혁⁺⁺

(전주대학교)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아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분석과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두 변수의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교만족도를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유인하려는 학교에 기초한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1. 문제제기

학업성취도는 학령기 아동의 대표적인 발달지표이며,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이렇듯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발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지표임

* 본 논문은 2005년도 선정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제번호 KRF-2005-411-J09501)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00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과 동시에, 학령기 이전 발달단계의 인지, 정서, 신체적 발달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발달의 결과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업성취도의 중요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학업성취도가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08a; 2008b).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업성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한 채창균·최지희·정지선·이상준·김승연·류지영·신동준·최기산(2004a)의 연구는 일반계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구소득은 수능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호영(2006)의 연구는 평균가구소득 최상위 10% 학교와 최하위 10% 학교 간에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최근에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능점수는 청년층의 취업률과 취업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 그리고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채창균·김미숙·김안국·옥준필·김미란, 2004b).

학업성취도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부모세대의 빈곤이 자녀세대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개입지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학업성취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거나 또는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발달영역에 개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개입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유형이다.¹⁾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 정서, 건강 영역 등에 개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러한 개입의 대표적인 분야가 학교만족도이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만족도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선, 아동기의 복지상태(well-being)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생활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학교는 학령기 아동의 대표적인 생활의 장이다. 하루의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결코 행복한 아동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학교만족도는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도 중요하지만 학업성취를 높임으로써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개입지점인 것이다. 즉, 학교만족도가 높아져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면 성적도 오를까라는 데 있다. 언 듯 보기에는, 상당히 논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http://eduzone.kedi.re.kr/>을 참고하라.

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면,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증가할 것이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적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그 동안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이유는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줄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학교성적이 나쁘게 학교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 없다. 같은 논리로, 학교성적이 좋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가 주로 후자의 경우라면, 학교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의 개입 가설은 설득력이 없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기간 동안의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아동패널의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4-5학년 동안의 학교만족도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설계를 통하여 종속변수가 일어나는 시점(즉, 6학년 학업성취도) 이전의 학교만족도 정도(즉, 4-5학년 학교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활용하여 두 변수 간의 종단적인 영향의 방향성이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인과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최근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부모학력, 가족구조, 가족 빈곤 등 부모 및 가족 요인, 둘째, 아동의 성별이나 정서적 특성 등 아동요인, 셋째, 학교 관련요인, 마지막으로 부모감독이나 부모자녀 애착 등 부모-자녀간 관계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가족 요인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 중의 하나로 가족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빈곤이나 가족구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분야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Haveman & Wolfe, 1995; Hill and Sandfort, 199; Duncan & Brooks-Gun, 1997; Corcoran, 2000; Bradley & Corwyn, 2002). 먼저 가족빈곤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전체적인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가족 소득의 영향이 빈곤한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구인회, 2003a: 구인회 외, 2006; Duncan & Brooks-Gun, 1997). 즉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일수록 학업 성취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가족소득의 영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빈곤한 가족의 아동에게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나 빈곤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의 영향은 단순히 빈곤 여부의 문제를 넘어 빈곤의 시기나 기간에 따라 그 부정적인 영향이 배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and Sjaastad, 1995, Conger, Conger and Elder, 1997; Smith, Brooks-Gun and Klebanov, 1997; 김광혁, 2006b). 즉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할수록, 초기 아동기나 초기 학령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둘째, 가족구조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족 관련 변수이다(McLanahan, 1985; 구인회, 2003a; 김광혁, 2006b). 가족 성원의 구성상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지만 특히 한 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의 역할 모델의 부재나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양육 부담의 가중 문제, 그리고 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소득의 감소로 인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cLanahan and Sandefur, 1994; McLoyd, 1998). 또한 한 부모가 된 원인에 따라서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McLanahan, 1997; 구인회, 2003a). 사별 가족의 경우, 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이혼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이다. 또한 이혼 가족 역시,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의 부모와 아동의 적응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 부모의 학력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변수 중 하나이다(김광혁, 2007).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 아동요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요인은 아동의 성별이나 건강, 지능, 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 유능감 등과 같은 정서적 특성 등이다(Bradley and Crowyn, 2002).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불안 등 정서적 특성은 아동의 행동에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며(김회화·김경연, 1999), 아동의 학업성취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개념, 자기 효능감 등 아동의 정서적 또는 인지적 자기 인식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윤경희·김경희, 2003; 이경화·정혜영, 2006; 김광혁, 2006a; 김선숙·고미선, 2007). 즉 정서적 또는 인지적 자기 인식 정도가 강하고 분명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의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우울/불안 역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우울한 아동의 경우, 도전적인 학업과제에 대해 무력감을 나타내며,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Lewinsohn, 1974, 배은정·조옥귀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아동의 정서적 특성 변수들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빈곤이나 가족구조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구인회, 2002, 김광혁, 2006a; 이정화·장혜영, 2006). 즉 빈곤이나 가족구조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아동의 정서적 상태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가 학업성취도를 낮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아동의 성별 역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인정되고 있다. 초기 아동기의 경우, 여성 아동이 남성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등교육 단계로 올라갈수록 남성 아동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력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3)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 즉 학교만족도이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정서적인 요인으로 선생님과의 관계나 친구관계는 학업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또는 친구관계가 좋고, 건전할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경근·변수용, 2007).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의 경우, 선생님의 기대수준이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한다(김선숙·고미선, 2007). 그러나 이러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및 친구와 관계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이나 만족도 등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나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 시간적 우선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만족도를 학업성취의 선행변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업성취도가 학교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황여정·김경근, 2006, 김옥선·오윤자·최명구, 2006). 즉 두 변수 간에는 상호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종단적인 자료의 부재나 방법론의 한계 등의 이유로 거의 부재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4) 부모-자녀 간 관계적 요인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나 애착 등 부모-자녀 간 관계적 변수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Coleman, 1988; 1990). 즉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받는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며, 부모-자녀간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역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류경희, 2003; 정미경·김영희, 2003; 김선숙·고미선, 2007). 또한 부모-자녀 간 관계적 요인들 역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Huston, McLoyd, and Coll, 1994; Brody, Flor, and Gibson, 1999; 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06a; 김광혁·차유림, 2007; 임세희, 200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빈곤하거나 한 부모가 가족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 정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가 낮아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은 서울아동패널(SCPS) 2004-2006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panel survey)이다. 서울아동패널은 1차년도인 2004년부터 3차년도인 2006년까지 9개 초등학교의 4학년인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첫 해 조사(4학년)인 2004년에는 1785사례가 조사되었고, 아동이 5학년이 된 2차 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사례를 기준으로 92.94%가 조사되었으며, 3차 년도에는 86.6%인 1546사례가 조사되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교실에서 행하는 집단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전달된 설문지에 부모가 자기기입(self-report)하고 밀봉하여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아동패널에서는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비행, 건강 등 아동의 다양한 발달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소득 등 기본적인 가족배경 변수는 물론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환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한 변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가족빈곤,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부모감독, 부모-자녀 애착 등이며, 이 밖에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 아동의 성 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먼저 학업성취도는 아동 교육 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국어와 수학 시험(각 15점 만점)을 통해 측정되었다. 서울아동패널은 매 조사년도마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시험을 통해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교만족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학교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학교만족도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적이 있다',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없이 나간 적이 있다' 등 총 9문항(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마지막 3문항은 점수의 방향을 역으로 수정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

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다원분석에서는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에 기초하여 4, 5학년의 평균 학교만족도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4, 5,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 원점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 신뢰도(α)는 .716, 5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 신뢰도는 .759, 6학년 시기의 신뢰도는 .774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가족빈곤 변수는 서울아동패널에서 매년 보고하고 있는 월 평균 가족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계산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로 환산하여 사용되었다.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4, 5학년 시기 중에서 1년만 빈곤한 가족과 2년 모두 빈곤한 가구로 구분하여 빈곤여부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수는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에 기초하여 4, 5학년의 평균 자아존중감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신뢰도(α)는 .768, 5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85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아동의 우울/불안 변수는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중 우울/불안을 측정하는 13문항(3점 척도)이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²⁾ 본 연구에서는 역시,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에 기초하여 4, 5학년의 평균 우울/불안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학년 시기의 우울/불안 신뢰도(α)는 .818, 5학년 시기의 우울/불안 신뢰도는 .83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부모감독 변수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생활 전반에 거친 감독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총 4문항(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시,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부모감독 정도에 기초하여 4, 5학년의 평균 부모감독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학년 시기의 부모감독 신뢰도(α)는 .789, 5학년 시기의 부모감독 신뢰도는 .76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부모-자녀 애착 변수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총 6문항(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시, 4학년과 5학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에 기초하여 4, 5학년의 평균 부모-자녀 간 애착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학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 애착 신뢰도(α)는 .818, 5학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 애착 신뢰도는 .84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주요변수에 대한 일원분석(빈도분석)과 이원분석(상관관계분석), 다원분석(다중회귀분석), 그리고 종단적인 상호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2) 이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조사표(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번역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표준화한 것이다(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³⁾ 분석이 시도되었다. 일원분석과 이원분석, 그리고 다원 분석은 SPSS1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경우, 연속변수로 측정되어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원분석, 즉 OLS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Amos7.0을 활용한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

변수(변수명)	변수정의	전체 평균 (표준편차, 척도 신뢰도)		
		4학년 (04년)	5학년 (05년)	4, 5학년 평균
아동의 성 (%)	여성	48.0		
	남성(=0)	52.0		
부모 교육수준 (%)	대학입학 이상	42.2		
	고졸이하(=0)	58.8		
가족구조 (%)	한부모 가족	3.7		
	양부모 가족(=0)	96.3		
가족빈곤 (%)	4, 5학년 시기중 1년 빈곤		7.4	
	2년 연속빈곤		4.2	
	비빈곤(=0)		88.4	
학업성취도	국어, 수하시험 성적 합	19.28	20.4	22.75*
	점수높을수록 성적 높음	(4.37)	(4.73)	(4.84)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 정도	29.92	29.45	29.45*
	9문항 (4점 리커트척도)	(3.74, α=.716)	(3.60, α=.759)	(3.60, α=.774)
	점수높을수록 학교만족도 높음			29.69 (3.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정도	30.04	30.59	30.32
	10문항 (4점 리커트척도)	(4.97, α=.768)	(5.17, α=.852)	(4.35)
	점수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높음			
우울/불안	CBCL 우울/불안	19.50	17.76	18.61
	13문항 (3점 리커트척도)	(4.78, α=.818)	(4.34, α=.832)	(3.96)
	점수높을수록 우울/불안 높음			
부모감독	아동에 대한 생활감독 정도	14.08	13.69	13.89
	4문항 (4점 리커트척도)	(1.99, α=.789)	(1.75, α=.768)	(1.59)
	점수높을수록 부모감독 높음			
부모-자녀 애착	부모와 자녀간 애착 정도	9.72	9.81	9.72
	6문항 (4점 리커트척도)	(2.16, α=.818)	(2.09, α=.844)	(2.16)
	점수높을수록 애착 높음			

* 6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만족도

※ CBCL은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임, 4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 3점 척도는 '전혀 아니다=1', '그런 편이다=2', '자주 그렇다=3'

3)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특정 시점(t)의 값이 이전 시점(t-1)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모형을 다변량 모델로 확장시켜서 두 변인 간의 상호 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 따라서 본 모형은 변수 또는 변수 간의 시기별 변화의 상호적 관계를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세희·박민선·김원정, 2007; 이은주·정익중, 2009).

4. 기초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빈도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약 48%로 남성보다 적었다. 부모교육수준은 약 58%가 고졸 이하였고, 약 42%가 대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또한 표본가구 중 아동이 4, 5학년 시기 중에서 1년이라도 욕구소득비가 1에 못 미치는 빈곤 가구는 약 7.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모두 빈곤한 가구는 4.2%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는 양친부모 가족이 약 96.3%, 한 부모가족 약 3.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6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22.75(표준편차=4.84)로 나타났으며,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19.28(표준편차=4.37)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4, 5학년 시기에 각각 측정된 학교만족도의 평균은 29.69(표준편차=3.22)로 나타났다. 역시, 4, 5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0.32(표준편차=4.35)로 나타났다. 4, 5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의 평균은 18.61(표준편차=3.96)로 나타났다. 또한 4, 5학년 시기의 부모감독 및 부모-자녀 간 애착의 평균은 각각 13.89(표준편차=1.59)와 9.72(표준편차=2.16)로 나타났다.

5. 이원분석

본 장에서는 다원분석의 사전분석으로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주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학교만족도와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6학년)의 관련성은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가족변수들 역시,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부모학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형태가 한 부모 가족일수록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빈곤한 가족의 경우, 빈곤하지 않은 가족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상태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아동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불안 문제가 적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감독이나 부모자녀간 애착 정도 역시,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부모의 자녀 생활에 대한 감독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자녀간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는 종속변수인 6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와 역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학교만족도1	1														
2. 학교만족도2	.54**	1													
3. 학교만족도3	.42**	.55**	1												
4. 부모학력	.16**	.15**	.16**	1											
5. 가족구조	-.10**	-.07**	-.07**	-.07**	1										
6. 1년 빈곤	-.08**	-.10**	-.08**	-.14**	.16**	1									
7. 2년 빈곤	-.11**	-.12**	-.10**	-.08**	.15**	-.06**	1								
8. 아동성별	.21**	.22**	.19**	.04	.01	.03	.01	1							
9. 자이존증감	.52**	.57**	.39**	.13**	-.11**	-.07**	-.10**	.04	1						
10. 우울불안	-.29**	-.29**	-.20**	-.02	.05*	.03	.05*	.10**	-.53**	1					
11. 부모감독	.20**	.22**	.17**	.14**	-.09**	-.12**	-.14**	.12**	.22**	-.06*	1				
12. 부모자녀애착	.33**	.32**	.21**	.08**	-.07**	-.50*	-.08**	.15**	.32**	-.11**	.13**	1			
13. 학업성취도1	.34**	.32**	.26**	.21**	-.09**	-.08**	-.12**	.13**	.29**	-.07**	.15**	.18**	1		
14. 학업성취도2	.33**	.32**	.25**	.23**	-.09**	-.11**	-.12**	.16**	.28**	-.06**	.17**	.16**	.64**	1	
15. 학업성취도3	.28**	.28**	.28**	.23**	-.13**	-.12**	-.10**	.08**	.25**	-.08**	.13**	.14**	.60**	.65**	1

*p<.05, **p<.01

6.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원분석

〈표 3〉은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정된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 I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아동,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이전 시기(4학년)의 학업성취도 등의 통제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학교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학교만족도와 함께 부모학력, 가족구조와 빈곤 등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족 요인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이후에도 학교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계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학력, 가족구조, 빈곤 등의 가족 특성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재 확인해주고 있는데,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한 부모 가족일수록, 그리고 빈곤한 가구일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원분석 결과

변수	I	II	III	IV	V
학교만족도 (4, 5학년 평균)	.448*** (.040)	.384*** (.040)	.304*** (.053)	.312*** (.053)	.157** (.047)
부모학력					
대학 입학 이상 (대입이상미만=0)		1.369*** (.255)	1.323*** (.254)	1.296*** (.255)	.917*** (.222)
가족구조					
한부모 (양부모=0)		-2.038** (.672)	-1.966** (.670)	-2.000** (.670)	-1.142 (.583)
빈곤 (4, 5학년 시기)					
1년 빈곤		-.992* (.497)	-.958 (.497)	-.892 (.499)	-.752 (.433)
2년 빈곤 (비빈곤=0)		-1.260* (.617)	-1.250* (.616)	-1.185* (.620)	-.769 (.538)
아동 성별					
여성 (남성 = 0)			.004 (.259)	.007 (.261)	.261 (.227)
자아존중감 (4, 5학년 평균)			.136** (.040)	.141*** (.040)	.144*** (.035)
우울불안 (4, 5학년 평균)			.082* (.038)	.083* (.038)	.017* (.033)
부모감독 (4, 5학년 평균)				.095 (.081)	.037 (.071)
부모자녀 애착 (4, 5학년 평균)				-.099 (.063)	-.093 (.054)
4학년 학업성취도					.554*** (.028)
상수	9.718*** (1.205)	11.257*** (1.208)	7.973*** (1.783)	7.199*** (1.981)	6.135*** (1.719)
F	124.365***	37.206***	25.015***	20.423***	60.999***
Adjusted R ²	.092	.130	.137	.138	.352

*p<.05, **p<.01, ***p<.001

모델 III과 IV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아동성별,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등 아동 요인과 부모감독, 부모자녀 애착 등 부모-자녀관계적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아동요인과 부모-자녀 관계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 모델 IV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부모감독, 부모자녀 애착을 추가로 통제 한 후에는 단기적 빈곤의 경우, 그 영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빈곤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이 통제된 다른 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의하여 일부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를 들면 빈곤 그 자체의 영향 보다는 빈곤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감독이나 부모 자녀 애착 정도도 낮은 이유로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모델 IV의 결과에서 우울불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모델 IV의 결과에 의하면 우울불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방향으로, 우울불안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면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져 우울불안도 일정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델 IV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의 방향은 정의 방향이나 그 크기는 상당히 작은 것을 보아도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약간의 높은 긴장이 우울불안의 형태로 표출된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추후 다른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모델 IV까지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가족요인(부모학력, 가족구조, 빈곤), 아동요인(성별,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그리고 관계요인(부모감독, 부모자녀 애착)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4-5학년 동안의 학교만족도는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력, 가족구조,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불안 변수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V에서는 최종적으로 4학년 학업성취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있듯이 4학년 학업성취도는 6학년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V와 VI 사이의 R^2 의 변화를 살펴보면 4학년 학업성취도 변수의 투입이 모델의 종속변수 설명량을 .138에서 .352로 약 1.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업성취도가 6학년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4학년 때 학업성취도가 높은(혹은 낮은) 아동일수록 6학년에 가서도 역시 학업성취도가 높을(혹은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 학업성취도가 6학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강력한 예측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4-5학년 동안의 학교만족도가 6학년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6학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4학년 학업성취도를 통하여 통제 한 상태에서 4-5학년 동안의 학교만족도가 6학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4학년 시기 이전에 학업성취도가 높아 4-5학년에 와서 학교만족도가 높게 형성되었고 그러한 아동의 경우는 6학년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 모델 VI의 추정방식에서는 4학년 학업성취도를 통제함으로써 학업성취도 때문에 높아진 학교만족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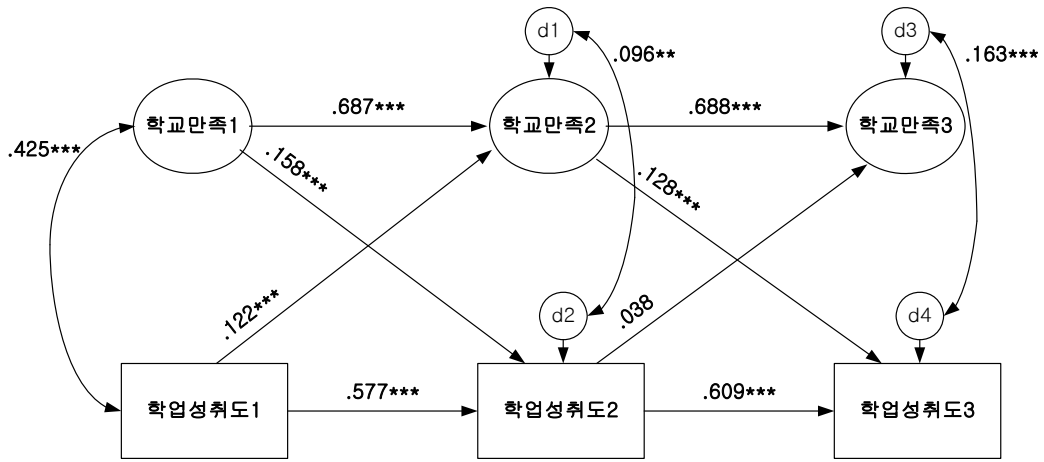
모델 V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학교만족도는 4학년 학업성취도를 추가로 통제 한 상태에서도 6학년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학년 학업성취도를 통제하고 나면 가족빈곤 및 가족구조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불안의 영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변수들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보다는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이 4학년 학업성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4학년 학업성취도를 통제하고 나면 6학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인 상호 관계

앞선 <표 3>에서 제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 변수나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 변수, 그리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 초기치를 통제하여 두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 검증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고 보다는 특정한 한 시점의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단순 관련성을 검증한 것으로 종단적인 상호관계나 영향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4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가 6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증 모형은 반대로 4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를 통제하고,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가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의 방향성이나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자기회귀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3개년 간 측정된 두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이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부록 1> 참조). 이를 위해 구조모형(교차지연모형) 분석 전에 각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각 시점에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부록 2> 참조). [그림 1]과 <표 4>는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1차년도의 학교만족도는 2차년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학교만족도 역시, 3차년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년도의 학업성취도는 2차년도의 학교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의 학업성취도는 3차년도의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영향력 역시,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학업성취도가 학교만족도에 미친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다.



*** $p < .001$, $\chi^2 = 465.673$ *** (df = 40), NFI = .927, CFI = .933, RMSEA = .077

〈그림 1〉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분석결과

〈표 4〉 구조모형의 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C.R.	표준화 추정치
학교만족도2 ← 학업성취도1	.033	.008	4.305	.122***
학교만족도3 ← 학업성취도2	.101	.008	1.320	.038
학업성취도2 ← 학교만족도1	.588	.098	5.997	.158***
학업성취도3 ← 학교만족도2	.523	.106	4.940	.128***
학교만족도2 ← 학교만족도1	.646	.039	16.453	.687***
학교만족도3 ← 학교만족도2	.731	.042	17.327	.688***
학업성취도2 ← 학업성취도1	.628	.024	26.654	.577***
학업성취도3 ← 학업성취도2	.625	.023	27.501	.609***

*** $p < .001$, $\chi^2 = 465.673$ *** (df = 40), NFI = .927, CFI = .933, RMSEA = .077

8.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4-5학년 동안의 학교만족도가 6학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4학년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다른 영향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두 변수 간의 종단적인 상호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김경근, 변수용, 2007; 김선숙, 고미선, 2007).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력격차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세대의 빈곤이 자녀세대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주는 함의가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포함한 학교 세팅에서의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이 주요한 개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만족도의 향상이다. 그 실천적 개입의 논리는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학교가 나를 반겨주는 곳이라는 의식이 늘어난다면 학업에도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학업에의 흥미가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아동의 경우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친밀도도 떨어진다는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개입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러한 개입가설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을 통하여 밝혀진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 간의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는 학교만족도 향상을 개입지점으로 설정한 많은 사회복지적 교육개입 프로그램의 개입가설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로써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대표적인 한계는 연구 자료가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종단적인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은 학령기 이전에 벌써 학업성취도의 상당부분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의 한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도를 통제변수로 활용함으로써 그 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시차를 둬으로써 상호적 영향 및 시간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횡단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인과관계의 규명에 진일보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영향요인을 모두 통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3개년 간의 비교적 짧은 조사에 기초한 분석결과를 완벽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한 인과관계의 규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험적 연구설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본 연구의 주체처럼 많은 사회과학적 탐구에서는 실험적 연구설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비실험적 관찰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의 체계적인 적용을 통하여 인과적 관계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부모의 실직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9: 1-21.
- 구인회. 2003a.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인회. 2003b.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 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 김경근·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광혁. 2006a.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4): 265-289.
- 김광혁. 2006b.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195-217.
- 김광혁. 2007. “경제적 박탈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아동권리연구』 11(2): 187-207.
- 김광혁. 2008a.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 김광혁. 2008b. “가족소득의 변화가 아동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혁·차유림. 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9-51.
- 김선숙·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성식. 2006. 교육기회 획득에 대한 가정배경과 학교경험의 영향. 『한국교육고용패널 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옥선·오윤자·최명규. 2006.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아동교육』 15(1): 195-207.
- 김윤희·권석만·서수균(2008).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우울/불안의 종단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4): 57-79.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 배은정·조옥귀. 2005.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우울 및 학업성취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5: 161-185.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호영. 2006.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 『제2차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윤경희·김경희. 2003.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3): 5-25.
- 이경화·정혜영. 2006. “아동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7(3): 271-284.

- 이숙정. 2006. “중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은주·정익중(2009).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191-221.
- 임세희. 2006. “장기빈곤이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 채창균·최지희·정지선·이상준·김승연·류지영·신동준·최기산. 2004a.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김미숙·김안국·옥준필·김미란. 2004b.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I) -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세희·박민선·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황여정·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2): 181-203.
- Bradley, R. and R. Corwyn.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ody, G. H., and D. L. Flor. 1998. “Maternal resource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9(3): 803-816.
- Brody, G. H., D. L. Flor and N. M. Gibson.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Brody, G. H., Z. Stoneman, and D. Flor. 1995. “Linking Family Processes and Academic Competence among Rural African American Youth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67 - 579.
- Brooks-Gunn, J. and G. Duncan.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Coleman, J. C.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 C.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K. J. Conger, and G. Elder.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pp. 288-310.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J. Duncan and J. Brooks-Gunn .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reg J.,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296-318.
- Duncan, G.,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296-318.
- Haveman, R. and B. Wolfe.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1829-1878.
- Korenman, S., J. E. Miller and J. E. Sjaastad.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127-155.
- McLanahan, S. 1985.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873-901.

- McLanahan, 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pp. 35-48.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Duncan & J. Brooks-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cLanahan, S. and G. D. Sandefur.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cLoyd, V.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Smith, J. R.,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 1997. "Consequences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pp. 239-287.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J. Duncan and J. Brooks-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Will Children Who Like School Do Better Academically?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chool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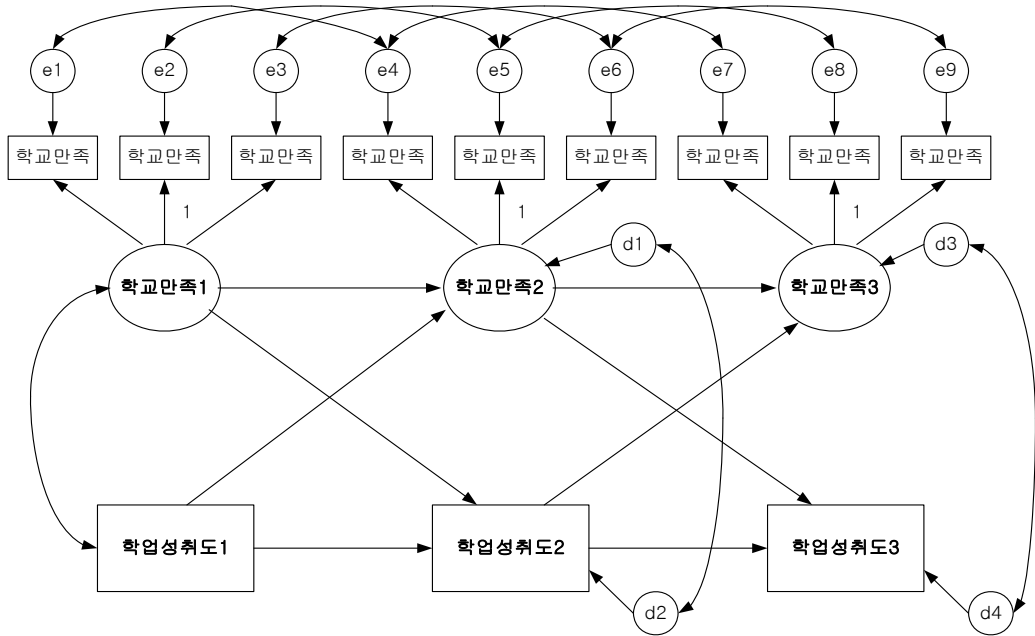
Bong, Joo-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g, Hyuk-Kim
(Jeonju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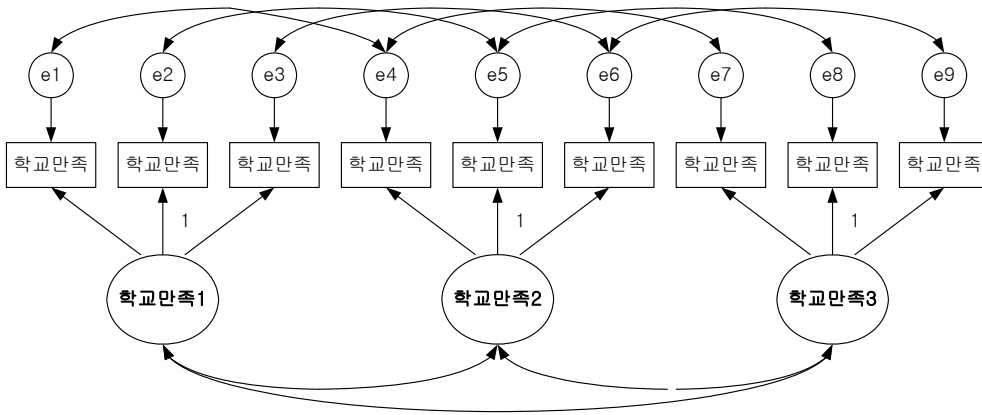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hildren's school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Seoul Children Panel Study dat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add new knowledge to understand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y taking into account of temporal order of the events of interest. In the analysis, we examine the effect of school satisfaction at the 4th- and 5th- grades on academic achievement at the 6th grade while controlling for the other factors including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t the 4th grade.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s school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school social welfare programs that attempt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by raising the level of school satisfaction among children.

Key words: school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논문 접수일 : 09. 08. 01, 심사일: 09. 09. 07, 게재 확정일 : 09. 10. 05]



<부록 2> 측정모형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지수	χ^2	사례수	df	CFI	NFI	RMSEA
측정모형	161.005***	1785	18	.961	.965	.067